

한승혁 “올해 선발 자리매김하겠다”



여기는 오키나와 **한승혁** 기자, 스프링캠프 현장을 가다

안정적 제구력에 집중...볼 스피드·변화구 완성
컨디션 비롯 자신만의 루틴 찾는 것 속제로 남아



“작년에 선발 가능성을 봤다면 올해는 자리매김 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2019시즌을 앞두고 KIA 타이거즈 투수 한승혁(27)이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린 스프링캠프에 합류해 이같이 각오를 다졌다.

한승혁은 ‘파이어볼러’라고 불릴 만큼 타고난 볼 스피드가 장점인 선수다.

지난 시즌 5선발에 구멍이 났을 당시 선발로 변신해 준수한 활약을 펼쳤다. 모두 19경기를 선발로 등판했고 7승 3패 평균자책점 5.83을 기록한 채 시즌을 마쳤다. 제구력이 한결 나아진데다 커브도 장착해 구종이 다양해진 덕분이었다.

올해도 잘 준비 한다면 그가 선발로 기용될 가능성은 높다.

이번 스프링캠프에서 몸만들기에 한창인 한승혁은 “특별히 중점을 두고 훈련하고 있는 부분은 없다. 제구 쪽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며 “이후 차츰 볼 스피드, 변화구 완성도 등 단계별로 높여려고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스프링캠프를 앞두고 열심히 준비했지만 작년에 비해서 생각보다 좋은 몸 상태가 아니다”면서 “특정 부위에 통증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더 커지지 않도록 많이 노력하고 있다. 부상을 조심해야 한다고 매년 말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한승혁이 선발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올 시즌 경쟁한 선수들과 경쟁을 펼쳐야 한다.

부동의 1선발 양현종을 비롯해 외국인 선수 터너와 윌랜드, 임기영 등과 경쟁은 불가피하다. 또 괴물신인으로 꼽히는 김기훈과 지난해 기대 이상의 호투를 펼친 유승철, 문경찬, 하준영 등도 예외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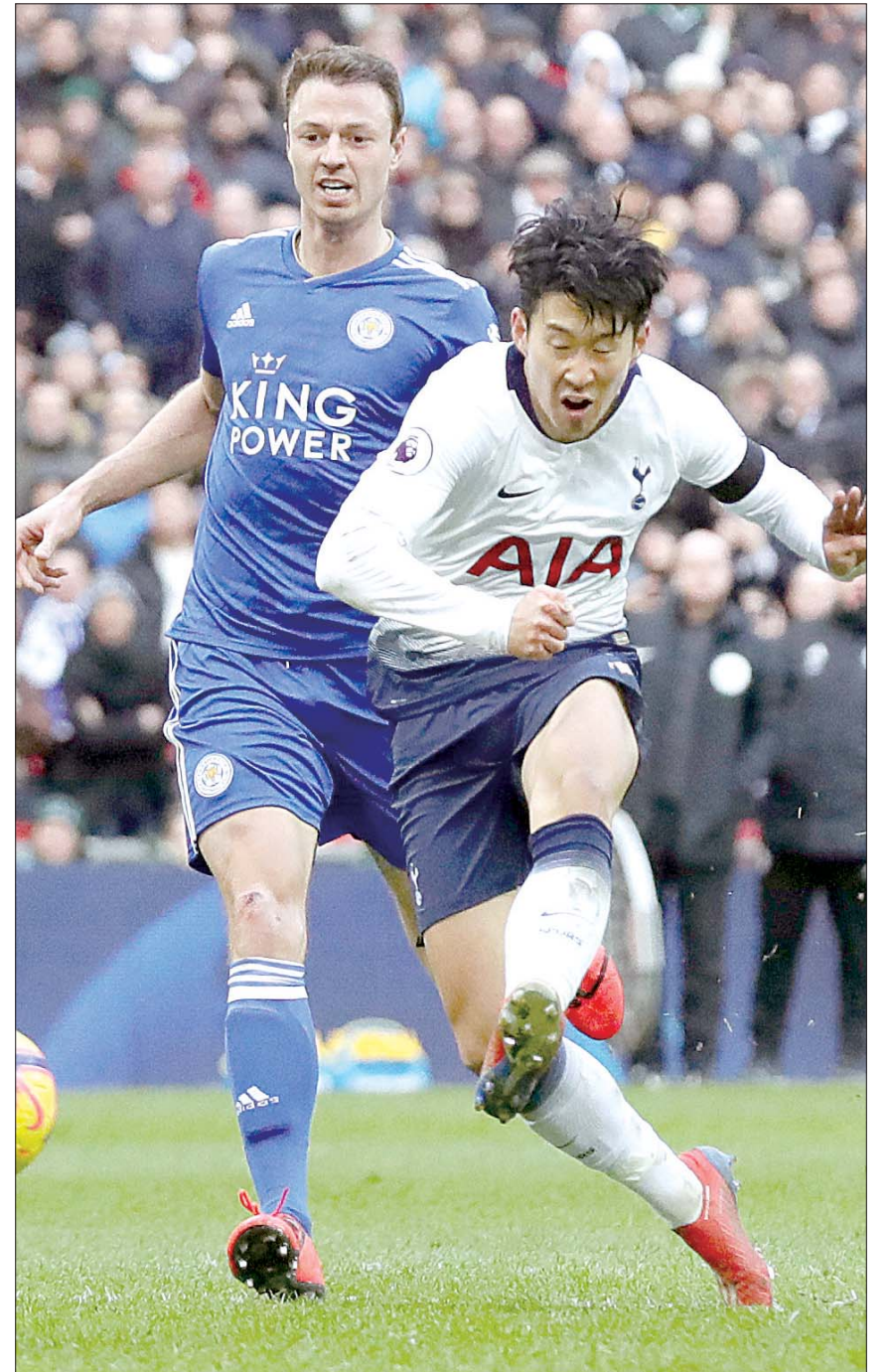
한승혁은 “작년에 선발로서 가능성을 봤다면, 올해는 자리매김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좋은 볼을 던지는 후보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몸 관리를 잘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일단 올 시즌 시작은 선발로 준비 하고 있다. 선발하면 가장 좋겠지만 결정이 어떻게 날지 모른다. 말은 바 최선을 다하는 게 중요한 것 같다”고 전했다.

한승혁이 이번 캠프에서 풀어야 할 숙제는 몸 만들기 뿐만 아니라 또 있다. 자신만의 루틴을 찾아내는 것이다.

한승혁은 “나만의 루틴은 아직 없다. 찾는 중이다”면서 “루틴을 만들기에 아직 선발 경험이 부족하다. 특정 선수들을 떠올리며 ‘어떻게 던져야겠다’고 생각을 많이 하는 것이 도움 되는 것 같다. 또 형들에게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고 있다. 좀 더 많은 경험을 쌓으면서 찾아내야겠다”고 설명했다.

올 시즌 한승혁이 선발투수로서 입지를 굳힐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한경규기자 hkk42@srb.co.kr



토트넘 손흥민(오른쪽)이 10일(현지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열린 2018-19시즌 잉글리시 프리미어리그 26라운드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후반 45분께 썬기 골을 넣고 있다. 뉴스

손흥민 3경기 연속골...존재감 과시

프리미어리그 11호·시즌 15호골 폭발
토트넘, 레스터 시티에 3대1 승리 거둬



잉글랜드 프로 축구 프리미어리그(EPL)에서 뛰고 있는 토트넘의 손흥민이 3경기 연속 골을 터뜨리며 존재감을 과시했다.

손흥민은 10일 오후 10시30분(한국시간) 영국 런던의 웨블리 스타디움에서 벌어진 레스터 시티와의 2018-2019 EPL 26라운드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며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 골을 터뜨렸다. 3경기 연속 골이다.

2019 아랍에미리트(UAE) 아시안컵을 치르고 돌아온 손흥민이 복귀전이었던 지난 달 31일 왓포드전과 2일 뉴캐슬 유나이티드전에 이어 또 골 사냥에 성공한 것이다.

리그 11호이자 시즌 15호골이다. 토트넘은 손흥민을 비롯해 다빈산 산체스, 크리스티안 에릭센의 릴레이 골을 앞세워 3-1로 승리했다.

20승(6패 승점 60)째를 신고한 토트넘은 리버풀(승점 65), 맨체스터 시티(승점 62)에 이어 리그 3위를 유지했다.

손흥민은 0-0으로 팽팽한 전반 14분 페널티박스 안에서 상대 해리 맥과이어의 다리에 걸려 넘어졌지만 시뮬레이션 액션을 했다고 판단한 심판으로부터 옐로카드를 받았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장면이었다. 느리 화면으로 보면 손흥민이 접촉한 뒤에 넘어진다. 접촉의 강도가 강해진 않았지만 페널티킥을 선언해도 이상할 게 없었다.

그러나 2-1로 앞선 후반 추가시간에 폭풍 질주에 이어 골을 터뜨리며 아쉬움을 달랬다. 무사 시소코가 수비 진영에서 걸어진 것을 하프라인에서 잡아 거침없이 돌파한 후, 왼발 슛을 때려 레스터 시티의 골망을 흔들었다.

동점골을 노린 레스터 시티 선수들이 공격적으로 자리 잡으면서 위협적인 역습이 가능했다.

토트넘은 전반 33분 산체스의 골과 후반 18분 에릭센의 추가골에 합입어 2-0으로 앞서나갔다. 후반 31분 제이미 바디에게 동점골을 내줬지만 경기 막판 손흥민의 썬기 골로 승부에 마침표를 찍었다.

손흥민과 토트넘은 14일 도르트문트(독일)를 상대로 2018-2019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 16강 1차전을 치른다. 뉴스

KIA 스프링캠프 이모저모

에이스 양현종 캐치볼 시작

“캐치볼 해 너도?”

“월급 받았으면 일 해야죠(웃음)”

김주찬과 양현종의 대화다.

양현종이 11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캐치볼을 하기 위해 글러브를 집어 들자 김주찬은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양현종은 스프링캠프에서 스트레칭 위주로 몸을 만들었다. 라이브 피칭은 물론 하프 피칭 단계까지 훈련을 진행하지 않았다.

캠프가 진행된 지 12일 만에 양현종은 새로 바뀐 공인구로 어깨를 풀었다.

양현종은 “공인구를 만져봤는데 아직 차이점을 잘 모르겠다. 좀 더 던져봐야 알 것 같다”고 말했다.

한승혁 “커브 더 늘려야겠어요”

“커브를 더 늘려야겠어요.”

호랑이 군단의 첫 실전 훈련에서 호투를 펼친 한승혁이 이같이 말했다.

한승혁은 11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열린 야쿠르트 스왈로스와의 연

습경기에서 선발로 등판해 선발 가능성을 드러냈다.

투구수 30개를 던질 동안 2이닝을 소화, 무실점으로 막았다. 커브, 슬라이더, 포크 등을 골고루 시험했고, 최고 구속은 147km 가 나왔다.

한승혁은 “프로 데뷔 후 처음으로 선발로 준비하고 있다. 아직 몸상태는 100%가 아니지만 컨디션을 잘 끌어 올려 이번 시즌 길게 던지고 싶다”면서 “커브 구사율을 높일 계획이다. 커브 등 느린공을 많이 활용하다 보면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도움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경규기자 hkk42@srb.co.kr



11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 일대에서 캐치볼을 하고 있는 양현종의 모습. 한경규기자



베테랑들의 질주 KIA 타이거즈 최형우(왼쪽부터), 나지완, 이범호가 11일 일본 오키나와 우라소에 구장에서 전력질주 하고 있다.

한경규기자 hkk42@srb.co.kr

전남장애인체육회 장애인동계체전 참가

오늘부터 15일까지... 종합 10위권 진입 목표

전남장애인체육회가 12일부터 15일까지 강원도와 경기도 일원에 개최되는 제16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에 출전한다.

전남장애인체육회는 11일 이번 동계체전에 휠체어컬링, 빙상(쇼트트랙),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알파인스키 등 6종목에 58명(선수 27, 경기임원 16, 본부임원 15)이 참가해 전국 10위권 진입을 목표로 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대회는 알파인스키, 스노보드, 크로스컨트리스키, 바이애슬론 종목은 평창 알펜시아리조트에서 개최되고 아이스하키는 강릉하키센터 보조링크, 휠체어컬링은 의정부실내빙상장에서 열린다.

전남장애인체육회에 따르면 이번 대회 메달 입상선수는 빙상종목 IDD 성인부 500m, 1,000m에서 은메달 2개, 알파인스키에 처음 출전하는 여자 시카 입식부문에 최길라

(시각가이드:고운소리)선수가 회전, 대회 전 부문에서 은메달 사냥에 도전한다.

또 14회 동계체전에서 전남 최초로 실상 종목에서 메달을 획득한 김민연선수가 남자 크로스컨트리스키 4km, 남자 바이애슬론 4.5km 부문에서 동메달 획득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전남장애인체육회 김은래 사무처장은 “날씨는 춥고 훈련은 고되고 힘들었지만 선수단의 도전정신이 설원과 얼음 위에서 빛나고 있으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리조트 뮤지엄에서 개최된 대회식장에서 전남선수단을 따뜻한 악수와 함께 격려했다.”

한편 전남휠체어컬링팀은 이날 열린 사전 경기에서 충남을 7대5, 전북을 6대5로 각각 물리쳐 8강 진출에 청신호가 켜졌다.

양생기자 gungullove@srb.co.kr